

고등학생들의 정보이용환경(IUEs)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Information Use Environments

정진수 (Jin Soo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토론과 결론 |
| 3. 연구 방법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이용환경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열 높은 지역 고등학생들의 특성과 전형적인 정보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원, 그리고 이용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K구 소재 중산층과 사교육기관이 밀집한 지역 3개 고교 22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188부의 유효응답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SPSS24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T-검증, 카이제곱 교차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사람들, 정보문제, 문제해결, 이용환경의 네 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 지역 고등학생들은 학교교육, 대학진학, 변화와 혁신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으며 여러 정보원 중에 인터넷커뮤니티와 포털을 가장 선호하였다. 학생들의 전형적인 정보문제는 7개 자아범주의 21개 문제임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감정적 자아와 인지적 자아 범주의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두 자아범주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주요정보원이었는데 이 결과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이라는 조사 결과와는 달라 흥미롭다. 학생들의 주중 일상적 이용환경은 집과 학교이며 그 외 스마트폰, 사교육학원, PC 또는 노트북 등의 순이었고 학생들의 주말 일상적 이용 환경은 집 외에 사교육학원, 음식점, PC 또는 노트북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용환경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해 연구 결과로부터 파생된 여러 연구 질문을 남겼으며 다양한 맥락에 적용가능한 정보이용환경 모형을 교육열이 높은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Use Environ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high schools, identified the typical problems of the students and their information sources to resolve the problems, and analyzed the settings the students use daily.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220 students in 3 different high schools located in the affluent community area of K-Ku in Seoul particularly known for high academic interests. 188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24.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tudents' attitudes toward education, going to college, and changes and innovations were positive. that they chose the internet as their most favorite information sources for problems, and that 21 problems in 7 self-categories were identified as the students' typical problems, and that the problems within emotional and cognitive self we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t was interesting that the students use parents and siblings as information sources to resolve the problems within emotional and cognitive self, although they chose the internet as their favorite information sources in general. The settings that students use daily during weekdays were homes, schools, smart devices, academic tutoring centers, PC or laptop in order. The students' daily settings for weekends were homes, academic tutoring centers, restaurants, PC or laptop in order. These setting was statistical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to suggest the further research questions and to show the application of the IUEs for understanding high school students in a specific setting.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high school students in different contexts.

키워드: 고등학생, 청소년, 정보이용환경, 정보행태, 정보문제, 정보요구, 정보원 이용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ts, Young Adults,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Use Environments, IUEs,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Sources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37624).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schung@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7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189-213,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18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 고등학교는 보통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할 수 있으며 대략 만 15세에서 만 18세까지 연령대의 학생들이 있다. 에릭슨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을 고민하는 혼돈의 시기라고 명명하였으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Slavin 2014)고 하였는데 인간발달단계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호르몬이 왕성하게 작용하며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많은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

고등학생들은 자아정체성 확립과 자기 발달을 위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Havighurst 1972; Latrobe and Havener 1997; Shenton and Dixon 2003).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등학생들의 생활과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이해하려는 노력 보다는 교육과 대학입시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D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고등학생”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학업성취도”, “학업 소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소진(academic burnout)”, “스마트폰 중독”, “자기조절 척도”, “내재적 동기”가 연관 검색어로 제시된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자살”, “사회적 지지”, “공격성”, “자기효능감”, “인터넷 중독”, “정신건강”의 연관 검색어가 제시된다. 이러한 연관 검색어들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고등

학생 또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렌즈라고 한다면 연구자들의 관심이 교육과 돌봄의 관점에서 특정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소년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서울 K구 소재 중산층과 사교육기관이 밀집한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정보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이 학생들이 추구하는 정보원과 일상적 이용 환경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 지역 고등학생 정보이용자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Taylor(1991)가 제안한 정보이용환경(Information Use Environments)이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이용환경(IUEs)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세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정보이용환경 개념이 1991년에 제시된 이후 2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진 정보행태 연구의 진전에 맞추어 이론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정보이용환경(Taylor 1991)이론은 특히 도서관 시스템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 연구가 아닌 인간 중심 이용자연구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이용자집단 이해하려는 연구를 위해 적합하다. 이 모형의 제안 이후 정보행태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특히 일상생활정보추구(Savolainen 1995)의 개념이 제안되어 다양한 이용자집단의 정보행태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이제는 한 이용자집단의 정보이용환경 역시 일상생활 정보추구 개념을 제외하고는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포함하여 정보이용환경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맥락 속 청소년 집단의 정보행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용하는 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술연구에서 청소년 정보이용 연구들의 한계는 청소년들의 모든 맥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Shenton 2007). 실제 정보이용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맥락 속에서 정보를 추구하는데 그러한 독특한 맥락들은 공통성을 도출하는 연구를 통해 강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맥락을 구분하여 정보환경이론 모형을 적용하면 세분된 이용자집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나아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비교분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집단은 일정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추측되는 서울 K구 소재 사교육 기관과 중산층 밀집 지역의 고등학생들이다.

셋째, 고등학생의 정보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론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발표된 모형 중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형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며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론에 기반 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파편화된 연구결과의 생산이 아닌 고등학생 정보이용에 대한 이론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용어의 정의

- 문제: Taylor(1991)가 정의한 대로 문제를 광의의 일반적 의미로 정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형성의 껍을 느끼며 갖게 되는 정보요구(Information needs)의 개념과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 전형적 문제: Taylor(1991)는 “전형적” 문

제를 문제의 발생 빈도와 이용자 집단에게 인식된 중요한 문제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집단에게 인식된 중요한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문제 발생의 빈도를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날씨와 교통 정보와 같은 일상생활문제들이 그대로 전형적 문제로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K구 소재 중산층과 사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가. 사람들(People)

연구문제1: 고등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비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대학진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 변화와 혁신 수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비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대학진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 변화와 혁신 수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은 서로 연관성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3: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정보원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가?

나. 문제(Problems)

연구문제4: 고등학생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5: 고등학생들의 문제 중요도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학년, 성별, 전공)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가?

다. 문제 해결(Resolution of Problems)

연구문제6: 고등학생들이 전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은 무엇인가?

라. 환경(Settings)

연구문제7: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환경은 무엇인가?

연구문제8: 고등학생들의 이용 환경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학년, 성별, 전공)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가?

2. 이론적 배경

한 이용자 집단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자집단이 정보를 이용하는 맥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적 틀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용환경 모형(Taylor 1991)과 청소년들 일상생활 정보요구의 이론적·실증적 모형(Agosto and Huges-Hassell 2006a; 2006b)을 적용하였다.

2.1 정보이용환경(Information Use Environments)이론의 적용 논의

정보이용환경(Taylor 1991)은 이용자 조사연구의 틀로서 이용자 집단이 유용한 정보를 선택

하는 개인적 및 맥락적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이다. Taylor(1991)는 정보메세지의 흐름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정보메세지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집합이 한 이용자집단의 정보이용환경을 결정하며 그러한 요소들은 사람들, 정보문제, 문제해결, 그리고 환경의 네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요소로서 “사람들”은 한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되어야 할 항목이다. Taylor(1991)는 이용자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뿐 아니라 비인구통계학적 특성도 살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이용자 정보행태에 영향을 주는 이용 정보원 유형, 교육 및 변화와 혁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Taylor(1991)는 이용자집단으로 동질성을 공유하는 직업별, 사업별, 특정관심집단별, 특정사회계층집단별로 구분하여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Chung(2003)은 연령별 및 지역별 이용집단인 도심지역 어린이 이용자집단도 동질성을 공유하는 맥락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 인구통계적인 특성인 지역(도심)과 연령별(어린이)로 이용자 집단을 구성하여 정보이용환경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이용자집단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요소로서 “문제”는 해당 이용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문제들이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일반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정보이용자들도 역시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이해한다(Taylor 1991). Taylor는 특히 “전형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 이용자 집단의 문제들을 정의하려고 하였는데 여기서 전형성

이라는 의미는 정보 문제의 발생 빈도와 이용자 집단에게 인식된 중요성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Taylor(1991)는 문제를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보 문제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보이용자 집단의 문제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공식적 문제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 문제로 나누기 쉽지 않다(Savolainen 1995). 따라서 문제의 발생 출처를 가리지 않고 해당 이용자들의 정보문제를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요소로서 “문제 해결”은 전형적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정보와 문제 해결과정을 의미한다. Taylor(1991)는 정보문제와 문제해결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깔끔하게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Dervin(1983), Nilan과 Dervin(1986), MacMullin과 Taylor(1984) 등은 그러한 문제 해결의 본질적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이 그들 집단의 맥락 속에서 인식하는 구체적인 정보문제와 문제해결 과정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문제 유형과 해결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환경”이다. 정보이용자 집단이 속한 환경과 그 환경 속의 정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Taylor(1991)는 환경 개념을 직업별 이용자집단에 적용하여 네 가지 환경적 요소가 해당 이용자집단의 정보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첫째, 집단조직 내 다양한 정보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구조와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접근하도록 하는지, 둘째, 집단조직 내 관심영역의 정보접근, 정보배포 패턴, 그리고 신뢰성 파악 방식, 셋째, 정보접근의 용이

성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집단조직의 역사와 경험을 살펴본다. 조직이 역사와 경험을 가질수록 조직은 관료화, 구획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될 때 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게 된다.

2.2 청소년의 정보요구 모형의 적용 논의

본 연구는 Agosto와 Hughes-Hassell(2006a; 2006b)이 밝혀낸 도심지역 청소년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모형을 활용하여 “전형적”인 정보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보요구에 일상생활정보추구(Savolainen 1995)의 개념을 적용한 Agosto와 Hughes-Hassell(2006a; 2006b)의 질적 연구를 통해 인간발달 과정에 필요한 7개 자아 범주로 나뉜 청소년들의 28개 정보 요구가 발견되었다(〈표 1〉 참조). 두 단계로 보고된 이 연구에서 1단계(Agosto and Hughes-Hassell 2006a)는 청소년 발달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왜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7개의 자아 범주 유형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만 14세에서 17세에 이르는 27명의 도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 오디오일지, 활동기록로그, 사진, 반구조화 인터뷰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단계(Agosto and Hughes-Hassell 2006b)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총 28개의 정보요구 유형을 이론적 모형의 7개 자아 범주에 맵핑하여 실증적 모형까지 완성하였다.

이 모형은 도심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발되었으나 관련 선행연구

〈표 1〉 도심지역 청소년 정보요구(Agosto and Hughes-Hassell 2006a; 2006b)

번호	문제 유형
사회적 자아	
1	친구/학우/이성 관계 (친구간 갈등/감정교류, 이성교제)
2	사회적 활동 (친구들과의 사교활동, 동아리활동, 영화관, 스포츠관람 등)
3	대중문화 (관심연예인 또는 대중문화관련 정보 등)
4	패션 (옷, 헤어스타일, 화장 등)
5	사회적/도덕적 규범 (결혼식/장례식 등 규범, 운전면허증, 음주, 투표권 등의 나이제한)
감정적 자아	
6	가족관계 (가족 간 배려, 갈등 등)
7	감정적 안정감 (위로, 불안, 혼란, 위축 등)
8	종교적 믿음 (교회, 절 등의 종교를 통한 안정)
사색적 자아	
9	자아 이미지 (타인에게 비춰지는 이미지와 외모)
10	철학적 문제 (사랑, 증오, 죽음, 전쟁, 경제적 불평등 등)
11	유전적 뿌리/문화정체성 (족보, 이사 또는 이민 경험 등)
12	시민활동 (자원 봉사, 정치참여 데모 등)
13	대학 (진학할 대학)
14	진로 (전공 선택과 직업)
15	자아실현 (자아실현과 만족을 위한 과정과 노력)
신체적·물질적 자아	
16	반복되는 일상생활 (시간/날씨 확인, 입을 옷 고르기, 저녁메뉴 고르기 등)
17	신체 안전 (학교폭력, 야간위험, 범죄피해 예방 등)
18	상품과 서비스 (상품 쇼핑, 맛집 찾기)
19	경제적 문제 (알바구하기, 수입과 용돈 지출과 관리, 은행)
20	건강 (질병, 생리대 종류, 병원진료 및 수술)
21	직업적 책임감 (알바와 자원봉사 업무 관련)
창의적 자아	
22	창의 행위 (글쓰기, 댄스,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등)
23	창의성 소비 (독서, 댄스 관람, 공연 관람, 게임하기 등)
인지적 자아	
24	학업 (시험, 과제 완성, 성적향상, 성취감)
25	학교 문화 (학교 교칙-상벌규정 등, 관습, 학교운영방식 등)
26	최신 이슈 동향 (탄핵, 대선, 전쟁위협, 핵무기 등)
성적 자아	
27	성적 안전 (성관계, 성병, 임신 등)
28	성적 정체성 (동성애, 성별정체성)

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단지 저소득층 청소년들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혜택 받은 계층의 청소년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Agosto and Hughes-Hassell 2006a; 2006b) 확증(corroboration)되었다. 이러한 확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Agosto와 Hughes-Hassell(2006a; 2006b)이 발견한 정보요구 모형을 본 연구의 대상인 국내의 중산층과 사교육기관 밀집지역의 고등학생에 적용하여 “전형적”인 문제들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2.3 선행연구

청소년기를 지나는 고등학생들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이용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 중심의 정보이용자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선행연구 부분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업관련 정보이용에 관하여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과 교육방식의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일상생활 정보추구를 다룬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연옥(2007)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개발의 목적으로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와 대처방식, 그리고 이용 정보원을 확인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와 학습에 관한 정보요구가 가장 높았고 친구와의 관계, 여가에 대한 요구 역시 그 뒤를 이었다. 이 학생들은 인터넷과 친구를 이용해 정보요구를 해결했고 학교, 교사, 학교도서관은 정보요구를 해결함에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비록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요구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제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정보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서비스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확대를 강조하였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 청소년 일상생활정보 정보이용 연구는 박현모와 이지연(2013) 그리고 김성은과 이지연(2013)이 있다. 박현모와 이지연(2013)은 일상생활정보추구(Savolainen 1995)와 정보의 장(Fisher and Naumer 2006)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청소년들의 정보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보요구는 선행연구들이(Agosto and Hughes-Hassell 2006a; 2006b; 이연옥 2007) 밝혀낸 바와 같이 발달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고루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정보의 장의 유형과 수가 달랐으나 이들 모두 또래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장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성은과 이지연(2013)은 일상생활정보추구(Savolainen 1995), 정보의 장(Fisher and Naumer 2006), 그리고 진지한 여가(Stebbins 2001)의 개념을 적용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청소년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성별, 경제적 수준, 교육열의 정도 등과 관련 없이 정보화기기를 사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이용하였고, 온라인 게임, 음악 감상, 영화감상, 독서 등 다양한 일상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가상정보공간에서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또래 집단 내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도서관 인식과 정보이용을 연구한 이정미(2015) 역시 소수의 청소년 대상 연구들 중 하나로서 도서관 정보원과 인터넷 검색엔진 정보원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청소년들은 도서관 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만 책 대출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추구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기기 사용을 통해 정보행태를 연구한 임여주(2016)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 역시 학업과 여가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미디어

사용 또한 능동적이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 행태를 보고하는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어 청소년집단의 다양한 맥락 내 정보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서울 K구 소재 고등학교 사서교사들의 모임을 통해 학생 대상 설문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개교 사서교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3개교는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1개교, 일반계 남녀공학 고등학교 1개교, 남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개교이다. 3개교 모두 학교도서관 설치되어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였다. 연구자는 이들 학교에 각각 방문하여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반 단위로 배포하도록 요청하였고 총 199부의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2017년 5월 16일부터 시작되어 2017년 5월 31일에 완료되었다.

3.2 설문지 문항 구성

설문지는 정보이용환경(Taylor 1991) 이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4개 요소를 틀로 하여 구성되었다(〈표 2〉 참조). 첫 번째 영역은 “사람들”로서 이용자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비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모두 8개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 학년, 성별, 전공 문항을 포함시켰다. 비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Taylor (1991)가 제시한 대로 정보행태에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의 중요성, 대학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학생들의 선호정보원을 5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고 또한 학생들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원 유형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문제”로서 Agosto와 Hughes-Hassell (2006a; 2006b)가 제시한 7개 범주의 28개의 정보 요구에 대해 각각 개인적 중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문제해결”로서 제시된 28개 문제별 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을 복수로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영역은 “환경”으로서 10개의 일상생활 환경의 이용여부를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 문항구성 내용과 문항 수

	IUEs의 구성요소	구성 내용	문항 수
I	사람들	인구통계학적특성(나이, 학년, 성별), 비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 대학, 변화와 혁신에 대한 태도, 선호정보원 유형)	8
II	문제	청소년 정보요구의 이론적·실증적 모형(Agosto and Hughes-Hassell 2006a; 2006b)에 따른 7개 자아범주의 28개 문제의 중요도 선택	28
III	해결	청소년 정보요구의 이론적·실증적 모형(Agosto and Hughes-Hassell(2006a; 2006b)에 따른 해결 정보원 유형을 복수로 선택	28
IV	환경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환경을 선택	20

3.3 데이터 분석

수집된 199개의 설문지는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코딩과 검토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결측 문항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불성실 응답 설문지를 발견하여 이를 제외하고 총 188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코딩된 데이터는 IBM SPSS 버전 24로 옮겨 기술통계, t-검정, 카이제곱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Spearman rho),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3.4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표본 추출이 완벽한 확률표집방법으로 실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설문조사는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사항으로써 강제할 수 없다.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과정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완벽하게 확률표집의 랜덤 표본추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확률표집방법에 의거하여 선정된 지역 내 모든 학교 교사들의 협조를 얻

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어려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확률 표집 방법의 랜덤 추출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K구 내 고등학교 사서교사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설문조사지원을 자원한 3개교 사서교사들에게 반 단위로 소속된 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방법을 의뢰하였다.

둘째, 상기된 첫째 이유로 인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설문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각 고등학교의 3학년은 학습권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는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3학년 담당 교사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다.

4. 분석 결과

4.1 사람들(People)

4.1.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의 나이는 만15세가 68명(36.2%), 만16세 역시 68명(36.2%), 만17세는 49명(26.1%), 만18세는 3명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특성	빈도	백분율(%)	변수	특성	빈도	백분율(%)
나이	만15세	68	36.2	전공	문과	50	26.6
	만16세	68	36.2		이과	56	29.8
	만17세	49	26.1		예체능	7	3.7
	만18세	3	1.6		미정	75	39.9
	합계	188	100		합계	188	100
학년	1학년	143	76.1	성별	남성	105	55.9
	2학년	45	23.9		여성	83	44.1
	합계	188	100		합계	188	100

(1.6%)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143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학생들은 44명(23.4%)으로 구성되었으며 3학년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남학생은 105명(55.9%)이고 여학생은 83명(44.1%)이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문과 50명(26.6%), 이과 56명(29.8%), 예체능 7명(3.7%), 그리고 미정 75명(39.9%)이었다.

4.1.2 비인구통계학적 특성

(1) 학교교육의 중요성, 대학진학의 중요성, 변화와 혁신 수용태도

학교교육의 중요성, 대학진학의 중요성, 변화와 혁신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세 문항 모두 5점 리커드 척도에 4점 이상의 평균값이 나타났고 <표 4>와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들은

학교교육의 중요성과 대학진학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변화와 혁신에 대한 태도 역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학교교육의 중요성 인식, 대학진학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변화와 혁신 수용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스피어만의 로우(Spearman's rho) 상관분석을 했다(<표 5> 참조). 먼저,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학진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유의확률 0.03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변화와 혁신 수용의 긍정적 태도 역시 유의확률 0.033로 그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대학진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변화와 혁신 수용의 긍정적 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 비인구통계학적 특성(학교교육, 대학진학, 변화와 혁신 수용)의 평균

	평균	표준편차	N
학교교육의 중요성	4.29	0.822	188
대학진학의 중요성	4.36	0.869	188
변화와 혁신 수용태도	4.11	0.829	188

<표 5> 학교교육의 중요성, 대학진학의 중요성, 변화와 수용태도의 상관분석 결과(Spearman's rho)

		학교교육의 중요성	대학진학의 중요성	변화와 혁신 수용태도
학교교육의 중요성	상관계수		0.158*	0.156*
	유의확률 (양측)		0.03	0.033
	N		188	188
대학진학의 중요성	상관계수	.158*		-0.072
	유의확률 (양측)	0.03		0.326
	N	188		188
변화와 혁신 수용태도	상관계수	0.156*	-0.072	
	유의확률 (양측)	0.033	0.326	
	N	188	188	

*p<0.05 수준에서 유의함

(2) 선호정보원

응답자들의 선호정보원 유형을 2개까지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표 6〉 참조), 인터넷 커뮤니티 및 포털이 전체 응답의 36.5%로 압도적 1위를 나타냈다. 2위로 집계된 부모/형제/자매 정보원이 응답의 14%인 것을 비교하면 1위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은 다른 정보원에 비해 매우 선호되는 정보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학생들은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앱), 교사, SNS, 책, 잡지, 전자자료, 학원 강사, 그리고 TV 등의 대중매체 순서로 선호하였다.

선호정보원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학년별, 나이별로 카이제곱 교차분석을 했다. 먼

저, 성별에 따른 선호정보원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선배/후배($\chi^2=11.523$, $df=1$, $p=0.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보였다(〈표 7〉 참조). 학년에 따른 선호정보원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선배/후배($\chi^2=7.720$, $df=1$, $p=0.005$), 부모/형제/자매($\chi^2=5.011$, $df=1$, $p=0.025$), 교사($\chi^2=4.145$, $df=1$, $p=0.04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학년별 차이를 나타냈다(〈표 8〉 참조). 마지막으로 나이에 따른 선호정보원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chi^2=14.767$, $df=1$, $p=0.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표 9〉 참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만을 제시하면 〈표 7〉, 〈표 8〉, 그리고 〈표 9〉와 같다.

〈표 6〉 선호 정보원 기술통계

정보원 유형	빈도	백분율(%)	순위
친구/선배/후배	53	13.70	3
부모/형제/자매	54	14.00	2
교사	31	8.00	5
학원강사	14	3.60	8
인터넷 커뮤니티/포털(네이버 유튜브 등)	141	36.50	1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28	7.30	6
책, 잡지, 전자자료 등	16	4.10	7
스마트폰 또는 기기의 앱	44	11.40	4
TV 등 대중매체	5	1.30	9
전체	386	100	

〈표 7〉 성별 선호정보원의 카이제곱 교차분석 결과

선호정보원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친구/선배/ 후배	빈도	40	13	53
	선호정보원 중%	75.50%	24.50%	
	성별 중 %	38.10%	15.70%	
	$\chi^2=11.523$, $df=1$, $p=0.001^{**}$			

**p<0.01

〈표 8〉 학년별 선호정보원의 카이제곱 교차분석 결과

선호정보원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친구/선배/후배	빈도	33	20	53
	선호정보원 중 %	62.30%	37.70%	
	학년 중 %	23.10%	44.40%	
	$\chi^2=7.720, df=1, p=0.005^{**}$			
부모/형제/자매	빈도	47	7	54
	선호정보원 중 %	87.00%	13.00%	
	학년 중 %	32.90%	15.60%	
	$\chi^2=5.011, df=1, p=0.025^*$			
교사	빈도	28	3	31
	선호정보원 중 %	90.30%	9.70%	
	학년 중 %	19.60%	6.70%	
	$\chi^2=4.145, df=1, p=0.042^*$			

*p<0.05 **p<0.01

〈표 9〉 나이별 선호정보원의 카이제곱 교차분석 결과

선호정보원		나이				전체
		만15세 또는 미만	만16세	만17세	만18세	
교사	빈도	18	7	4	2	31
	선호정보원 중 %	58.10%	22.60%	12.90%	6.50%	
	나이 중 %	26.50%	10.30%	8.20%	66.70%	
	$\chi^2=14.767, df=3, p=0.002^{**}$					

**p<0.01

4.2 문제(Problems)

4.2.1 전형적 문제 도출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

응답자의 중요도 판단에 따른 “전형적인” 문제를 신뢰성과 타당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Agosto와 Hughes-Hassell(2006a; 2006b)이 제시한 7개 범주의 28개 문항을 기준으로 설문된 데이터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된 변수가 구성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

를 먼저 살펴보았다.

설문된 데이터는 KMO(Kaiser-Mayer-Olkin) 검정을 통해 0.5보다 큰 값인 0.749를 얻어 표본 적합도가 높다는 것이 나타났고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05)보다 크게 작아 요인분석실시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표 11〉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은 직각회전방법(Varimax)를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으로 진행하였고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에 정리되었다.

〈표 10〉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성

이론적 모형	최초 문제 수	직교 회전 후	Factor Loading							Cronbach's 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신체적 물질적 자아	6	4	.813	-	-	-	-	-	-	.814
			.740	-	-	-	-	-	-	
			.708	-	-	-	-	-	-	
			.704	-	-	-	-	-	-	
감정적 자아	3	4	-	.821	-	-	-	-	-	.709
			-	.810	-	-	-	-	-	
			-	.557	-	-	-	-	-	
			.401	.553	-	-	-	-	-	
사색적 자아	7	4	-	-	.808	-	-	-	-	.709
			-	-	.723	-	-	-	-	
			-	-	.628	-	-	-	-	
			-	-	.610	-	-	-	-	
인지적 자아	3	3	-	-	-	.782	-	-	-	.697
			-	-	-	.775	-	-	-	
			-	-	-	.757	-	-	-	
성적 자아	2	2	-	-	-	-	.843	-	-	.803
			-	-	-	-	.819	-	-	
창의적 자아	2	2	-	-	-	-	-	.882	-	.724
			-	-	-	-	-	.827	-	
사회적 자아	5	2	-	-	-	-	-	-	.802	.654
			-	-	-	-	-	-	.791	
고유치			4.791	2.7	1.853	1.63	1.404	1.277	1.016	
설명된 분산의 %			22.816	12.858	8.824	7.761	6.686	6.082	4.84	69.867%

〈표 11〉 KMO와 Barlette의 검정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_Meyer_Olkin 측도		.749
Bar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424.169
	자유도	210
	유의확률	.000

최종적으로 구성된 개념은 요인1부터 요인7까지 모두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6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문항이 응답의 일관성, 즉 신뢰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표 10〉 참조).

분석 중 타당도가 낮은 문제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친 결과, 최초 7개 범주를 구성하는 28개 문제(Agosto and Hughes-Hassell

2006a; 2006b)로부터 7개 문제가 제거된 21개 문제가 되었다(〈표 10〉, 〈표 12〉 참조). 첫 번째 요인 분석 과정에서 공통성이 0.349이었던 “종교적 믿음”을 제외하였고,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요인적재치가 각각 0.469, 0.468, 0.463인 “반복되는 일상생활”, “자아이미지”, “자아실현”을 제거하였다. 두 번째 요인분석 과정에서 회전된 성분행렬 중 요인적재치가 0.498과 0.48

〈표 12〉 요인분석 후 도출된 정보 문제

범주 (문제의 수)	문제	요인 분석 후 (문제의 수)	요인분석 과정 중 제거된 문제	범주 이동하여 포함된 문제	범주 이동한 문제	도출된 문제
신체적 물질적 자아 (6)	반복되는 일상생활	요인 1 (4)	· 반복되는 일상 생활	-	· 신체안전	경제적 문제
	신체안전					상품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직업적 책임감
	경제적 문제					건강
	건강					
감정적 자아 (3)	감정적 안정감	요인 2 (4)	· 종교활동	· 신체안전	· 친구/학우/ 연인관계	감정적 안정감
	가족관계					가족관계
	종교 활동					친구/학우/연인관계
사색적 자아 (7)	자아 이미지	요인 3 (4)	· 자아이미지 · 자아실현	· 학교문화	· 대학 · 진로	유전적 뿌리/문화정체성
	유전적 뿌리/문화정체성					시민활동
	시민활동					철학적 문제
	철학적 문제					학교문화
	대학					
	진로					
인지적 자아 (3)	학업	요인 4 (3)	· 최신이슈와 동향	· 대학	· 학교문화	대학
	학교문화					진로
	최신 이슈와 동향					학업
성적 자아 (2)	성적 안전	요인 5 (2)	-	-	-	성적 안전
	성적 정체성					성적 정체성
창의적 자아 (2)	창의 행위	요인 6 (2)	-	-	-	창의 행위
	창의성 소비					창의성 소비
사회적 자아 (5)	친구/학우/이성 관계	요인 7 (2)	· 사회적활동 · 사회적/도덕적 규범	· 친구/학우/ 연인관계	-	대중문화
	사회적 활동					
	대중문화					패션
	패션					
	사회적/도덕적 규범					

이었던 “사회적/도덕적 규범”과 “최신이슈와 동향”이 2차로 제거되었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신체안전”, “친구/학우/이성 관계”, “대학”, “진로”, “학교문화” 등 5개 문제는 범주 이동하였다. 결론적으로 요인분석과정에서 구성된 7개 요인들은 전체 데이터의 69.867%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gosto와 Hughes-Hassell (2006a; 2006b)이 질적 연구를 통해 제시한 7개 범주 28 문제 중 7개 범주 21개 문제가 일관성

있는 중요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전형적” 문제는 7개 자아범주로 구분되는 21문제라는 것을 도출하였다(〈표 12〉 참조).

4.2.2 문제 중요도 인식에 관한 기술통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7개 자아범주 요인 속 문제 중요도 평균을 각각 살펴보면 “감정적 안정감”, “가족관계”, “친구/학우/이성 관계”, “신체안전”에 문제들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4.515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이 문제들이 포함

된 요인 2(감정적 자아) 범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표 13〉 참조). 그 다음은 “대학”, “진로”, “학업,”이 포함된 요인4(인지적 자아)로 나타났으며 신체적·물질적 자아(요인1), 창의적 자아(요인5), 성적 자아(요인6), 사회적 자아(요인7), 그리고 사색적 자아(요인3)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표 13〉 참조).

4.2.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별 중요도 인식의 차이분석

각 문제별 중요도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 학년, 성별, 전공과 각 문제의 중요도 평균값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나이, 학년, 전공에 따른 문제 중요도 평균값의 차이는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성별은 문제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변수였다. 21개 문제 중 “친구/학우/이성 관계”(t= 2.921, p=0.004), “성적 안전”(t=3.07, p=0.002), “창의성 소비”(t=2.174, p=0.031)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표 14〉 참조).

〈표 13〉 정보문제 중요도 평균

		평균	표준편차	범주 평균	중요도 평균 순위
요인 1 신체적 물질적 자아 (4)	경제적 문제	4.12	0.876	3.998	3
	상품과 서비스	3.54	0.95		
	직업적 책임감	3.97	0.919		
	건강	4.36	0.863		
요인 2 감정적 자아 (4)	감정적 안정감	4.58	0.661	4.515	1
	가족관계	4.59	0.723		
	친구/학우/이성 관계	4.57	0.603		
	신체안전	4.32	0.837		
요인 3 사색적 자아 (4)	유전적 뿌리/문화정체성	3.02	1.126	3.5125	7
	시민활동	3.44	0.971		
	철학적 문제	3.78	0.919		
	학교문화	3.81	0.915		
요인 4 인지적 자아 (3)	대학	4.3	0.839	4.4333	2
	진로	4.63	0.565		
	학업	4.37	0.723		
요인 5 창의적 자아 (2)	창의행위	3.7	1.054	3.9	4
	창의성 소비	4.09	0.823		
요인 6 성적 자아 (2)	성적 안전	4.14	0.955	3.895	5
	성적 정체성	3.66	1.228		
요인 7 사회적 자아 (2)	대중문화	3.65	1.052	3.54	6
	패션	3.43	0.936		

〈표 14〉 성별에 따른 문제 중요도 t-검정 결과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친구/학우/ 이성관계	남성	105	4.69	0.487	0.047
	여성	83	4.42	0.701	0.077
t=2.921, p=0.004**					
성적 안전	남성	105	3.95	1.013	0.099
	여성	83	4.37	0.822	0.09
t=-3.07, p=0.002**					
창의성 소비	남성	105	4.2	0.801	0.078
	여성	83	3.94	0.832	0.091
t=2.174, p=0.031*					

*p<0.05 **p<0.01

4.3 문제 해결(Resolution of Problems)

전형적인 문제로 도출된 7개 자아 범주의 21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을 각 문제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기술통계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각 문제별로 이용하는 정보원들이 조금씩 달랐다. 먼저 문제 중요도 1순위인 감정적 자아 범주의 “감정적 안정감”, “가족관계”, “친구/학우/이성 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은 부모/형제/자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친구/선배/후배와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을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2순위인 인지적 자아 범주의 “대학”, “진로”, “학업”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답자들은 부모/형제/자매, 친구/선배/후배, 그리고 교사의 순서대로 이용하였다. 3순위인 “경제적 문제”, “상품과 서비스”, “직업적 책임감”, “건강” 문제가 포함된 신체적·물리적 자아 범주에서는 응답자들은 부모/형제/자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친구/선배/후배의 순서대로 이용하였다. 문제 중요도 4순위인 창의행위와 창의성 소비 문제가 포함된 창의적 자아 범주에서 응답자들은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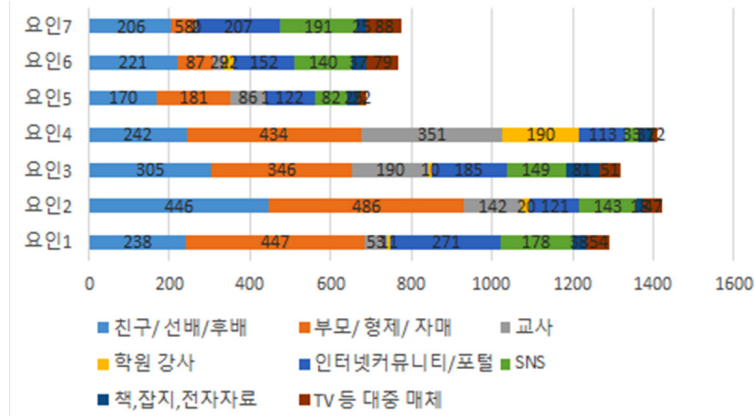
구/선배/후배,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그리고 SNS를 많이 이용하였다. 5순위로서 “성적 안전”, “성적 정체성” 문제가 포함된 성적 자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형제/자매, 친구/선배/후배,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의 순서대로 이용되었다. 6순위인 “대중문화”와 “패션” 문제가 포함된 사회적 자아 범주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친구/선배/후배,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그리고 SNS의 순서대로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뿌리와 문화정체성”, “시민 활동”, “철학적 문제”, “학교문화” 문제가 포함된 사색적 자아 범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형제/자매, 친구/선배/후배, 그리고 교사가 이용 순위 상위의 정보원이었다.

최상위 문제 중요도 평가를 받은 감정적 자아(요인2)와 인지적 자아(요인4)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의 수는 그 외 다른 자아 범주들에 비해 많았다(〈그림 1〉 참조).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제일수록 많은 정보원을 참고한다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빈도분석의 결과이므로 통계적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5〉 문제별 해결 정보원

요인분석 후	발견된 요인 집단별 문제유형	친구/선배/후배	부모/형제/자매	교사	학원 강사	인터넷 커뮤니티/포털	SNS	책, 잡지, 전자 자료	스마트 기기 앱	TV 등 대중 매체	합
요인 1 신체적 물질적 자아 (4)	경제적 문제	42 13.8%	138 45.2%	8 2.6%	3 1.0%	50 16.4%	29 9.5%	6 2%	21 15.5%	8 3.2%	305 100%
	상품과 서비스	101 24.3%	46 11.1%	2 0.5%	0 0%	106 25.5%	91 21.9%	9 2.2%	37 8.9%	23 5.5%	415 100%
		직업적 책임감	58 18.3%	109 34.4%	31 9.8%	4 1.3%	50 15.8%	26 8.2%	11 3.5%	15 4.7%	13 4.1%
	건강	37 10.9%	154 45.2%	12 3.5%	4 1.2%	65 19.1%	32 9.4%	12 3.5%	15 4.4%	10 2.9%	341 100%
	합계	238(3)*	447(1)*	53	11	271(2)*	178	38	88	54	1290
	요인 2 감정적 자아 (4)	감정적 안정감	136 34.9%	129 33.1%	27 6.9%	3 0.8%	32 8.2%	31 7.9%	7 1.8%	7 1.8%	18 4.6%
가족관계		79 26.2%	160 53.2%	22 7.3%	6 2.0%	12 4.0%	12 4.0%	4 1.3%	1 0.3%	5 1.7%	301 100%
		친구/ 학우/ 연인관계	155 39.5%	73 18.6%	17 4.3%	8 2.0%	36 9.2%	73 18.6%	2 0.5%	13 3.3%	15 3.8%
신체안전		76 20.5%	124 33.4%	76 20.5%	3 0.8%	41 11.1%	27 7.3%	5 1.3%	10 2.7%	9 2.4%	371 100%
합계		446(2)*	486(1)*	142	20	121	143(3)*	18	31	47	1423
요인 3 사색적 자아 (3)		유전적 뿌리/ 문화 정체성	37 13.1%	134 47.5%	16 5.7%	2 0.7%	38 13.5%	20 7.1%	22 7.8%	5 1.8%	8 2.8%
	시민활동	68 19.0%	83 23.2%	19 5.3%	1 0.3%	83 23.2%	67 18.7%	10 2.8%	9 2.5%	18 5.0%	358 100%
	철학적 문제	73 21.5%	72 21.2%	27 7.9%	6 1.8%	52 15.3%	36 10.6%	47 13.8%	5 1.5%	22 6.5%	340 100%
		학교문화	127 35.2%	57 15.8%	128 35.5%	1 0.3%	12 3.3%	26 7.2%	2 0.6%	5 1.4%	3 0.8%
	합계	305(2)*	346(1)*	190(3)*	10	185	149	81	24	51	1317
	요인 4 인지적 자아 (3)	대학	78 16.1%	143 29.6%	121 25.1%	65 13.5%	45 9.3%	12 2.5%	10 2.1%	6 1.2%	3 0.6%
진로		65 14.1%	149 32.3%	108 23.4%	43 9.3%	53 11.5%	11 2.4%	18 3.9%	7 1.5%	8 1.7%	462 100%
		학업	99 20.5%	142 29.3%	122 25.2%	82 16.9%	15 3.1%	10 2.1%	9 1.9%	4 0.8%	1 0.2%
합계		242(3)*	434(1)*	351(2)*	190	113	33	37	17	12	1412
요인 5 성적 자아 (2)	성적 안전	87 24.2%	94 26.2%	55 15.3%	1 0.3%	62 17.3%	37 10.3%	11 3.1%	5 1.4%	7 1.9%	359 100%
	성적 정체성	83 24.6%	87 25.7%	31 9.2%	0 0%	60 17.8%	45 13.3%	14 4.1%	3 0.9%	15 4.4%	338 100%
	합계	170(2)*	181(1)*	86	1	122(3)*	82	25	8	22	689
요인 6 창의적 자아 (2)	창의 행위	102 26.3%	40 10.3%	22 5.7%	20 5.2%	74 19.1%	68 17.5%	20 5.2%	12 3.1%	30 7.7%	388 100%
	창의성 소비	119 28.9%	47 11.4%	7 1.7%	2 0.5%	78 18.9%	72 17.5%	17 4.1%	21 5.1%	49 11.9%	412 100%
	합계	221(1)*	87	29	22	152(2)*	140(3)*	37	33	79	767
요인 7 사회적 자아 (2)	대중문화	106 25.8%	19 4.6%	1 0.2%	0 0%	107 26.0%	98 23.8%	6 1.5%	13 3.2%	61 14.8%	411 100%
	패션	100 24.8%	39 9.7%	1 0.2%	0 0%	100 24.8%	93 23.1%	19 4.7%	24 6.0%	27 6.7%	403 100%
		합계	206(1)*	58	2	0	207(2)*	191(3)*	25	37	88

* 괄호 안의 숫자는 그 범주 내 이용 순위임



〈그림 1〉 요인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원

4.4 환경(Settings)

4.4.1 환경에 대한 기술 통계

고등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표 16〉 참조). 주중에는 응답자 모두 집과 학교를 일상적으로 이용하였다. 더하여 스마트기기, 사교육학원, PC 또는 노트북, 음식점, 학교도서관,

독서실, 지역공공도서관, 봉사기관 순서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주말에는 집 외에 스마트기기, PC 또는 노트북, 사교육학원, 음식점이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독서실, 지역공공도서관, 봉사기관, 학교도서관 순서로 많이 이용하였다. 기타 이용 환경으로 〈표 16〉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노래방과 체육관이 각각 3건과 5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16〉 고등학생들의 일상적 환경 (N=188)

환경	주중 이용여부	빈도	이용 백분율(%)	환경	주말 이용여부	빈도	이용 백분율(%)
집	이용함	188	100	집	이용함	188	100
학교	이용함	188	100	학교	이용함	30	15.96
학교도서관	이용함	99	52.66	학교도서관	이용함	15	7.98
지역공공 도서관	이용함	30	15.96	지역공공 도서관	이용함	33	17.55
독서실	이용함	78	41.49	독서실	이용함	66	35.11
사교육학원	이용함	133	70.74	사교육학원	이용함	135	71.81
봉사기관	이용함	31	16.49	봉사기관	이용함	28	14.89
음식점	이용함	130	69.15	음식점	이용함	117	62.23
스마트기기	이용함	169	89.89	스마트기기	이용함	167	88.83
PC 또는 노트북	이용함	145	77.13	PC 또는 노트북	이용함	150	79.79

4.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 환경의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 환경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특성을 변수로 하여 각 환경의 이용 여부와 카이제곱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이, 학년, 성별, 전공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모두 분석해 보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만을 제시하였다(〈표 17〉, 〈표 18〉 참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주중 이용 환경은 사교육 학원($\chi^2=11.523$, $df=1$, $p=0.001$), PC 또는 노트북($\chi^2=7.857$, $df=1$, $p=0.005$)이었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주말 이용 환경은 사교육 학원($\chi^2=7.883$, $df=1$, $p=0.005$), 음식점($\chi^2=4.064$, $df=1$, $p=0.044$), PC 또는 노트북($\chi^2=16.849$, $df=1$, $p=0.000$)이었다(〈표 17〉 참조).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주중 이용 환경은 음식점($\chi^2=10.806$, $df=1$, $p=0.001$)과 PC 또는 노트북($\chi^2=8.807$, $df=1$, $p=0.003$)이었다.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주말 이용 환경은 사교육학원($\chi^2=10.889$, $df=1$, $p=0.001$)과 PC 또는 노트북($\chi^2=9.121$, $df=1$, $p=0.003$)이었다(〈표 18〉 참조).

〈표 17〉 성별에 따른 이용 환경의 카이제곱 교차분석 결과

환경		성별		이용 학생 수	N	
		남성	여성			
주중	사교육 학원	빈도	82	51	133	188
		사교육학원 중 %	61.70%	38.30%		
		성별 중 %	78.10%	61.40%		
		$\chi^2=11.523$, $df=1$, $p=0.001^{**}$				
	PC 또는 노트북	빈도	89	56	145	188
		PC또는노트북 중 %	61.40%	38.60%		
		성별 중 %	84.80%	67.50%		
		$\chi^2=7.857$, $df=1$, $p=0.005^{**}$				
주말	사교육 학원	빈도	84	51	135	188
		사교육학원 중 %	62.50%	37.80%		
		성별 중 %	80.00%	61.40%		
		$\chi^2=7.883$, $df=1$, $p=0.005^{**}$				
	음식점	빈도	72	45	117	188
		음식점 중 %	61.50%	38.50%		
		성별 중 %	68.60%	54.20%		
		$\chi^2=4.064$, $df=1$, $p=0.044^*$				
	PC 또는 노트북	빈도	95	55	150	188
		PC또는노트북 중 %	63.30%	36.70%		
		성별 중 %	90.50%	66.30%		
		$\chi^2=16.849$, $df=1$, $p=0.000^{**}$				

* $p<0.05$ ** $p<0.01$

〈표 18〉 학년에 따른 이용 환경의 카이제곱 교차분석 결과

환경		학년		이용학생 수	N	
		1학년	2학년			
주중	음식점	빈도	90	40	130	188
		음식점 중 %	69.20%	30.80%		
		학년 중 %	62.90%	88.90%		
	$\chi^2=10.806, df=1, p=0.001^{**}$					
	PC 또는 노트북	빈도	103	42	145	188
		PC또는노트북 중 %	71%	29.00%		
		학년별 중 %	72%	93.30%		
$\chi^2=8.807, df=1, p=0.003^{**}$						
주말	사교육 학원	빈도	94	41	135	188
		사교육학원 중 %	69.60%	30.40%		
		학년 중 %	65.70%	91.10%		
	$\chi^2=10.889, df=1, p=0.001^{**}$					
	PC 또는 노트북	빈도	107	43	150	188
		PC또는노트북 중 %	71.30%	28.70%		
		학년 중 %	74.80%	95.60%		
$\chi^2=9.121, df=1, p=0.003^{**}$						

**p<0.01

5. 토론과 결론

본 연구는 정보이용환경이론(Taylor 1991)의 네 가지 요소인 사람들(People), 문제(Problems), 문제해결(Resolution of Problems), 그리고 환경(Settings)을 적용하여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서울 K구 소재 중산층과 사교육기관이 밀집 지역 고등학생들의 정보이용환경을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지역 고등학생들은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학진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교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와 혁신 수용 태도의 긍정성 간에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대학진학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변화와 혁신 수용 태도의 긍정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이 지역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정보원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데 이는 성별, 학년, 그리고 나이와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을 선호한다는 청소년들의 의견과 그들의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다(Shenton 2007)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이 고등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선호정보원 가운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선호정보원은 친구/선배/후배뿐이었다. 학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정보원은 부모/형제/자매, 그리고 교사였다. 나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보원은 교사였다. 학년과 나이에 따라 학교 교육 및 대학 진학 등 문제에 있어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넷째, 이 지역 고등학생들의 전형적인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Agosto와 Hughes-Hassell(2006a; 2006b)가 개발한 청소년 정보요구 모형을 적용하여 설계한 설문지의 조사결과를 탐색적 요인 분석하였다. 모형에서 제시된 7개 자아범주 28개 문제를 이용한 분석 과정 중 데이터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위해 문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각 문제의 중요도 인식에 기반한 고등학생들의 전형적인 문제로서 7개 자아 범주 21개 문제가 도출되었다(〈표 10〉, 〈표 12〉 참조).

다섯째, 도출된 21개의 전형적 문제들이 포함된 7개 자아 범주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들은 감정적 자아 범주와 인지적 자아 범주 내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감정적 자아 범주 내 “감정적인 안정감”, “가족관계”, “친구/학우/이성 관계”, “신체안전”에 관련된 문제들과 인지적 자아 범주 내 “대학”, “진로”,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 뒤를 이어 신체적·물질적 자아, 창의적 자아, 성적 자아, 사회적 자아, 사색적 자아 속한 문제들의 순서로 중요도를 인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사색적 자아 범주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청소년기가 자아정체성 확립과 혼돈의 시기이고 자아정체성 확립이 주요 발달 과제(Slavin 2014)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철학적 고민이 포함된 사색적 자아 범주의 문제들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중요성 인식

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고등학생들이 자아정체성 확립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의 균형 있고 성숙한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 정보 서비스 필요성 또한 제기한다.

여섯째, 성별에 따른 문제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친구/학우/이성 관계”, “성적 안전”, “창의성 소비” 문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아무래도 여학생과 남학생의 관심 분야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고도 추측할 수 있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문제와 행동, 그리고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 지역 고등학생들의 문제별 이용 정보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모/형제/자매가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상위 2개 자아 범주인 감정적 자아와 인지적 자아 범주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부모/형제/자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 7개 자아 범주 중 창의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제외한 모든 범주의 문제들에서 부모/형제/자매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지역 고등학생들은 부모/형제/자매를 신뢰하고 있으며 밀착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원을 선호한다는 청소년들의 의견과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원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그들의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Shenton(2007)의 지적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이들 고등학생들은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을 이용하기 보

다는 신뢰할 수 있는 인적 정보원인 부모/형제/가족 정보원을 선호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관념적으로 선호하는 정보원과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해결의 과정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Taylor(1991)가 제시한대로 각 문제별 해결 과정까지 이해하게 되어 고등학생들 집단의 문제해결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여덟째, 이 지역 고등학생들은 7개 자아 범주 중 중요도 상위 2개 범주인 감정적 자아와 인지적 자아 범주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다른 자아 범주의 문제들보다 더 많은 정보원들을 이용한다는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몇몇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의 정보원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이 지역 고등학생들은 주중에 일상적으로 집과 학교를 이용하며 그 외 스마트기기, 사교육 학원, PC 또는 노트북 등을 순서대로 자주 이용한다. 주말에는 집 외에 스마트기기, PC 또는 노트북, 사교육 학원 등의 순서로 이용한다. 또한 주중 주말 모두 음식점, 학교도서관, 독서실, 지역공공도서관, 봉사기관, 체육관, 노래방 등을 이용하였다.

열째, 이 지역 고등학생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환경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 주중에는 사교육 학원, PC 또는 노트북, 주말에는 사교육 학원, 음식점, PC 또는 노트북 이용에 차이를 나타냈고 주말에는 사교육 학원, PC 또는 노트북 이용에 차이를 나타냈다. 학년에 따라 주중에는 음식점과 PC 또는

노트북 이용에 차이를 보였고 주말에는 사교육 학원과 PC 또는 노트북 이용에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이용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행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Taylor(1991)는 각 환경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는 게 해당 이용자 집단의 정보행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이용환경이론을 적용하여 환경요소를 살펴보았지만 각 환경 내 정보의 흐름은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된다면 고등학생들의 주요 환경인 집, 학교, 사교육학원, 그리고 스마트기기, PC 또는 노트북 환경 내의 정보의 흐름, 정보접근과 신뢰성 파악 방식 등 환경적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는 특정 맥락 속 고등학생들의 정보행태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 정보이용환경(Taylor 1991)을 적용하였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정보행태 연구(예, Wilson 1981)이론들은 이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이후 많은 연구들이 맥락 속 이용자 집단을 연구하여 왔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 수도 많지 않아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론 구축의 시간이 짧다. 정보이용환경(Taylor 1991)이론이 제안될 초기에는 주로 전문 직업군 정보이용자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이 이론이 활용되었으나 전문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특정 맥락 속 이용자집단에 적용된 연구로 모형의 확대 적용 시도는 있었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 어린이(Chung 2003), 학대받는 아동들(Hesberger, Murray, and Sokoff 2006)에 대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용환경(Taylor 1991)이론이 특

정 지역의 고등학생 정보이용자 집단 연구를 위한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여러 개의 후속 연구 문제들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후속 연구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맥락의 고등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와 도서관과 같은 교육 및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고등학생 정보이용자들이 더욱 필요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의 성숙한 자아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과 지원 체계를 설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성은, 이지연. 2013. 청소년의 가상정보 공간에서의 정보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4): 155-173.
- [2] 박현모, 이지연. 2013. 도시와 농어촌 청소년의 일상 정보행태 비교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1): 71-92.
- [3] 이연옥. 2007.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해결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107-134.
- [4] 이정미. 2015. 청소년의 도서관 인식 및 정보원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51-370.
- [5] 임여주. 2016.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455-490.
- [6] Agosto, D. and Hughes-Hassell, S. 2006a. "Toward a Model of the Everyday Life Information Needs of Urban Teenagers: Part I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10): 1394-1403.
- [7] Agosto, D. and Hughes-Hassell, S. 2006b. "Toward a Model of the Everyday Life Information Needs of Urban Teenagers: Part II Empirical Model."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11): 1418-1426.
- [8] Chung, J. 2003. "Children's Choice of Information Sources and Their Perception of Information: An Exploratory Case Study." In Callison, D. ed. *Measuring Student Achievement and Diversity in Learning: Papers of the Treasure Mountain Research Retreat #10 at the Elms, Excelsior Springs, Missouri*. Salt Lake City, UT: Hi Willow Research and Publishing: 145-164.
- [9] Dervin, B. 1983. "An Overview of Sense-making Research: Concepts, Methods and Resul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Meeting, May 1983.

Dallas, Texas.

- [10] Fisher, K. E. and Naumer, C. M. 2006. "Information Grounds: Theoretical Basis and Empirical Findings on Information Flow in Social Settings." In Spink, A. and Cole, C. eds, *New Directions in Human Information Behavior*. Springer: 93-111.
- [11]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Longman.
- [12] Hersberger, J. A., Murray, A. L. and Sokoloff, S. M. 2006. "The Information Use Environment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formation Research*, 12(1): 277.
- [13] Latrobe, K. and Havener, W. M. 1997.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High School Honors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Youth Services in Libraries*, 10(2): 188-200.
- [14] Nilan, M. and Dervin, B. 1986. *Sense Making and Information Seeking: A Factor Analysis of Information Seeking Dimensions*. Unpublished manuscript.
- [15] MacMullin, S. E. and Taylor, R. S. 1984. "Problem Dimensions and Information Traits." *The information Society*, 3(1): 91-111.
- [16]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3): 259-294.
- [17] Shenton, A. K. and Dixon, P. 2003. "Youngsters' Use of Other People as an Information-Seeking Method."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5: 219-233.
- [18] Shenton, A. K. 2007. "The Paradoxical World of Young People's Information Behavior." *School Libraries Worldwide*, 13(2): 1-17.
- [19] Slavin, R. E. 2014. *Educational Psychology: Theory and Practice*. 11th ed. Boston, MA: Pearson.
- [20] Stebbins, R. A. 2001. *New Direction in Theory and Research of Serious Leisure*. Lewiston: Edwin Mellen Press.
- [21] Taylor, R. S. 1991. "Information Use Environments." In Dervin, B and Voigt, M. J.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10: 217-255.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22] Wilson, T. D. 1981. "On User Studies and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Documentation*, 37(1): 3-1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ung Eun and Lee, Jee Yeon. 2013. "Research on Virtual Information Grounds and

- Information Use Behavior of Korean Youth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4): 155-173.
- [2] Park, Hyunmo and Lee, Jee Yeon. 2013. “A Comparison Study of the Everyday-Life Information Behaviors of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71-92.
- [3] Lee, Yeon-Ok. 2007. “School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for Satisfying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38(1): 107-134.
- [4] Lee, Jeong-Mee.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Adolescents Perceptions of Library and their Information 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351-370.
- [5] Lim, Yeojoo. 2016. “A Study of Young Adults’ Information Behavior and Media Use: Focusing on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455-490.

